

프랑스 “뒤집혔다”

“복지국가 재건” 진보 연합 총선 승리 ‘대이변’...극우 국민연합 3위로 추락

프랑스 총선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총선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극우 국민연합(RN)이 반극우 연대의 벽에 부딪혀 3위로 밀려났다. 대신,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위로 올라섰다. 프랑스 정치사에 극우 정당이 위협적 존재로 떠오를 때마다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화국 전선’이 이번에도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국 전선’은 극우 세력의 집권 저지라는 목표 아래 이념을 초월해 정치 세력이 하나로 연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프랑스 좌파 연합 내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가 7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에서 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양팔을 번쩍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 프랑스 좌파 정당들은 지난 달 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이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하자 NFP란 동맹 세력을 만들었다.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 부상에 맞서 결성한 좌파 연맹인 ‘민중전선’에서 이름을 따온 신민중전선은 그간 마크롱 대통령이 펼친 중도 우파 성향의 개혁 정책들을 폐지하고 ‘복지 국가’로의 회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비상이 걸렸다. 두 진영은 좌파 연합 내 극좌 정당인 LFI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극우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이를 통해 애초 RN 후보와 3차 대결이 예상된 지역구는 306곳에서 89곳으로 대폭 줄었고 양자 대결이 펼쳐진 지역구는 190곳에서 400곳 넘게 출격 뛰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에도 RN이 여전히 1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측치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반극우 저지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투표율은 여론조사기관 IFOP 추정 결과 67.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총선 2차 투표율인 46.2%보다 21.3%포인트 높은 것이며, 지난 달 30일 1차 투표율인 66.7%보다도 다소 올라갔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한 부유세를 더 강화해 재도입하고, 고소득자·기업 등에 대한 세금을 늘려 정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도 폐기하겠다고 입장이다. 신민중전선은 대선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공공 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 무료 급식 실시 등의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좌파 연합은 지난 달 30일 1차 투표 때까지만 해도 RN에 뒤처진 2위에 머물 것이라던 전망이 나왔다. 1차 투표 결과를 받아 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은

과 67.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총선 2차 투표율인 46.2%보다 21.3%포인트 높은 것이며, 지난 달 30일 1차 투표율인 66.7%보다도 다소 올라갔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총선 기간 내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극우에 반대해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추구 국가대표 주장 칼리안 음바페, 유명 팝가수 아야 나카무라, 배우 마리옹 코티야르를 비롯해 프랑스 역사학자 1천명도 언론 호소문을 올리며 RN 반대투표를 촉구했다. 반극우 연대의 힘은 애초 3위로 예상된 범여권을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영국 “뒤집는다”

스타머 총리 ‘국가 리셋’...난민 이송 정책 폐기·EU 관계 재설정

정권을 교체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국가 리셋’을 선언하며 출범하자마자 전 정부 뒤집기에 돌입했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극우 돌풍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대표적인 중도 성향 주요국 정상으로 주목받으면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 외교 무대에 데뷔, 브렉시트 이후 드러나지 않던 중도좌파적인 영국 이미지를 보여줄 기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당은 6일(현지시간) 보수당 정부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을 폐기하고 ‘고장 난’ 공공 의료 개혁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는 영국 구성국 자치정부와 ‘즉각적인 관계 리셋’을 선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순방에 나서면서 “자치정부 수반·부수반과

협력하는 우리 정부의 접근법을 즉각 재설정한다”며 “존중에 중점을 둔 의미있는 협력이 우리 영국 전역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권 자치정부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협력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일간 가디언은 풀이했다. 영국에서 헌법, 외교, 국방 등은 영국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지만 구성국 각 자치정부와 의회도 주택, 교육 등 분야에서 정책 자치권이 있다.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자치권 이양을 추진했으나 이들 세 구성국 자치정부는 보수당 정부 집권기에 점점 더 자치 지역 소외가 심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불법 이민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인권 침해와 국제법 충돌 논란을 빚다가 결국 한 차례도 르완다행 항공편을 띄우지 못했다.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는 없으며 반대해 온 스타머 정부는 첫 정책 결정으로 이를 폐기,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 국민 보건서비스(NHS) 위기와 관련해서도 스타머 총리는 이미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레미 외무장관은 취임 첫 주말 공작 유럽연합(EU) 회원국 독일과 폴란드, 스웨덴 순방에 올라 EU와 관계 재설정에 돌입했다. EU와 관계 개선 역시 스타머 정부가 보수당과 차별화한 공약이다. 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정부에서 이뤄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되돌리진 않겠지만 EU와 협력관계를 재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연합뉴스

바이든 사퇴냐 재기냐

지지층 결집 호소...1~2주 내 민주당 등 신뢰 회복 관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참패 이후 불거진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율 호소했으며, 이후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로 이동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부처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스크랜턴에서 태어났으며, 흑인과 노동조합은 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유세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을 살리려고 자기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으며 민주당이 백악관을 지키려면 그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하원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대상으로 소집한 비공개 회상회의에서 제리 내들러(뉴욕), 애덤 스미스(워싱턴),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조 모델(뉴욕)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짐 하인스(코네티컷), 조 로프그린(캘리포니아), 돈 바이어(버지니아), 릭 라슨(워싱턴주)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13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의원은 지금까지 5명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우려를 표명한 의원은 다수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상원에서는 오는 8일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

원 주도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대선과 함께 치르는 상·하원 선거에도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 8일부터 의사일정이 재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내용을 잠재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주말 내내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통화했으며 자신이 사퇴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2주 내로 민주당과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재기가 힘들다고 관측하고 있다. 크리스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난 그가 해낼 수 있다고 믿지만 이번 추가 정찰 중요하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리더로서 강력한 면모를 부각하고 고령 우려를 씻어낼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공화당은 오는 15~18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 ‘맞불 유세’를 자신의 견해를 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과 악연’ 우익 도쿄 도지사 3선 연임

간토대지진(1923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였던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 도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NHK에 따르면 8일 새벽 5시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후보는 291만 8000여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했다. 전체 투표수 대비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이다. 이로써 그동안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현직 도지사가 출마하면 매번 승리했다는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투표 완료 직후 공개된 NHK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고이케 현 지사의 예상 득표율은 40%를 넘어 20%대 초·중반에 그친 렌호 전 참의원(상원) 의원과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야카타 카타 시장을 큰 표 차이로 제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7일 오전 7시에 시작된 이번 도쿄도 지사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됐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최대인 5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투표율은 60.62%로 4년 전의 55.00%보다 5.62%포인트 상승했다. 3선에 성공한 고이케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권의 지지를 받았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자신의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을 만나 “37년 도정의 리더를 맡게 돼 존경을 받는다”면서 “도쿄도의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당선 인사를 했다. 애초 고이케 지사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은 렌호 후보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해 득표율이 약 19%로 3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